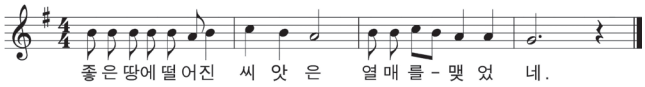
가톨릭부산
www.catholicbusan.or.kr
2017 본당 재탄생을 향한 새 복음화(5)
본당 복음화의 해
제2443호 2017. 7. 16.
▌발행 : 천주교부산교구 ▌편집 : 전산홍보국 629-8750 (48316)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427번길 39 ▌jubo@catb.kr ▌인쇄 : 주보인쇄사(809-2078~9)

연중 제15주일(농민 주일)

제1독서 이사야서 55, 10~11

화 답 송 시편 65(64), 10ㄱㄴㄷㄹ. 10ㅁ~11. 12~13. 14 (◎ 루카 8, 8)

◎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1. 하느님은 이 땅에 찾아오시어, 넘치는 물로 풍요롭게 하시나이다. 하느님의 강은 물로 가득하고, 당신은 곡식을 영글게 하시나이다. ◎
2. 정녕 당신이 장만해 주시나이다. 고랑에 물 대시고 이랑을 고르시며, 비를 내려 부드럽게 하시어, 새싹들에게 복을 내리시나이다. ◎
3. 한 해를 은혜로 풍요롭게 하시니, 당신이 가시는 길마다 기름진 땅이 되나이다. 사막의 풀밭에도 윤기가 흐르고, 언덕들도 기쁨의 띠를 두르나이다. ◎
4. 목장들은 양 떼로 뒤덮이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가득 쌓여, 환성을 올리며 노래하나이다. ◎

제2독서 로마서 8, 18~23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

복 음 마태오 13, 1~23

영성체송 시편 84(83), 4~5 참조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한국 교회는 7월 셋째 주일을 농민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날 교회는 농민들의 노력과 수고를 기억하면서 도시와 농촌이 한마음으로 하느님의 창조 질서에 맞갖게 살도록 이끕니다.

→ 담화문 바로보기

이 주간의 축일 ♣ 16일 : 돔니오, 라이넬다, 마리아 막달레나 포스텔, 비탈리아노, 시세난도, 아테노제네, 에우스타키오, 파우스토, 풀라도, 헬리에르

강 론

살아있는 마음의 밭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를 듣습니다.

씨앗이 길바닥에, 돌밭에, 가시덤불 속에, 그리고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지는 비유를 통하여 똑같은 씨앗이 아주 다양하게 뿌려지고 그 결과가 아주 다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씨앗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말씀 가운데 하나, 둘이 아니라 그분 말씀 전체이며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밭은 우리 자신들입니다. 이 밭은 여러 가지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길바닥이, 돌밭이, 가시덤불이, 좋은 토양이 될 수 있는 밭입니다.

다시 말하여 밭은 모든 조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살아 있는 밭입니다. 살아 있기에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모습의 신앙인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신앙인들 중에는 내가 닮고 배우고 싶은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에는 '왜? 저런 삶을 살아갈까?' 라고 질문을 던지게끔 하는 신앙인이 있고, 또 마지못하여 자신의 체면이나 겉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지내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데 그 삶의 변화가 서로 다름을 종종 느껴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과거에 연연하거나 아직도 자신의 삶을 중요시하거나 사랑과 용서의 삶보다는 이득을 먼저 따지며 살아간다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보다 두리뭉실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좋은 토양이 되지 못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밭은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부족함에서, 죄 속에서, 게으름에서 깨어날 때 우리는 좋은 토양의 밭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밭이 문제입니다. 말씀에는 관심조차 없는 '돌 같은 마음' ,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가시덤불 같은 마음' 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 밭에 돌을 골라내고 온갖 잡풀들을 뽑아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좋은 땅을 만드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고해성사를 보며 미사에 자주 참례하면서 밭갈이를 하듯 마음가짐을 정결하게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열매를 내는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김 정 욱
바오로 신부
사직대건성당 주임

지금여기

오늘, 나를 위해 꽃을 사다.

열심히 한다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진 않습니다.
알긴 하지만 기대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땐 맥이 빠집니다.
이젠 뭘 해도 안 될 거 같고
남보다 몹시 부족하단 생각에
한 톨의 자존감도 남지 않은,
우울함이 유난한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땐 집으로 오는 길에 나를 위해 꽃을 삽니다.
말로 하는 위로나 격려보다 다정합니다.

글 · 그림 : 이영 아녜스 수필가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Busan Catholic Peace Broadcasting Corporation
부산 FM 101.1MHz 울산 FM 94.3MHz 녹산 FM 101.5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7.17(월)~18(화)
김정욱 신부(사직대건성당 주임)
7.19(수)~22(토)
강인구 신부(중앙성당 부주임)

사랑이 있는 세상 문자참여 #2340
월~목 12:15~14:00
7.18(화) 함께 하는 여정
출연 : 금곡성당 글로리아 성가대
7.20(목) 퀴즈콩트 성경에서 온 그대 – 사도행전
출연 : 표용운 신부(명지성당 부주임)
"방청도 하고 콩트 참여도 하는 즐거운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신심단체, 주일학교, 청년회 누구나 환영!
문의 : 600-8824

♣ 17일 : 나르잘레, 네르세스 람프로낫츠, 도나타, 레오 4세, 레탄시오, 마르첼리나, 베스티나, 베투리오, 세쿤다, 스페라토, 아칠리노, 알렉시오, 야누아리아, 엔노디오, 제네로사, 제네로소, 치티노, 케넬름, 클레멘스, 테오도시오, 테오도타, 펠릭스, 헤드비지스, 히야친토

어린 시절 라틴어 미사가 그립다

김 상 진 요한

어린 시절에 참례했던 미사는 거의 라틴어로 진행됐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이었기 때문이다. 뜻도 모르는 라틴어 미사 경문을 따라 하느라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난다. 미사 중에 사제가 "도미누스 보비스꿈." 하면 신자들은 "엣꿈 스삐리뚜 뚜오."라고 응답했다. 요즈음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다. 그 시절 초등학생은 물론이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라틴어를 따라 했다. 또 그 시절 본당 신부님의 얼굴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세월이 흘러서라기보다 미사 중에 주례사제가 신자들을 바라보지 않고 등을 돌린 채 미사를 봉헌했기 때문이다. 나는 주례사제 제의 등 쪽에 새겨진 황금색 십자가만 기억이 난다. 지금처럼 사제가 신자들과 마주 보며 올리는 미사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난 1965년부터 도입됐다.

미사도 요즈음보다 20~30여 분은 더 길었던 것 같다. 미사 20여 분 전에 성당에 와서 두꺼운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는 신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영성체 후에는 거의 성가를 부르지 않았다. 영성체한 신자들이 침묵 시간을 즐기게 하려는 배려였다. 미사가 끝난 후에도 제자리에 앉아서 내 안에 오신 주님과 대화하는 신자들이 많았다. 그렇다 보니 교통이 불편하던 시절 걸어서 미사를 보고 가노라면 2시간은 족히 걸렸다.

자매들은 모두 머리에 흰색 미사보를 쓰고 미사에 참례했다. 형제들도 깨끗한 한복을 차려입고 나왔다. 간혹 미사보를 잊고 온 할머니들은 성당 앞줄에 감히 앉지 못하고 뒤쪽에서 미사를 봤다. 앞줄에 앉아서 미사보를 찾다가 "에쿠 미사보를 안 가져왔네."하며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뒤쪽으로 가던 모친이 생각난다.

마룻바닥 성당이어서 성당 입구에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해놓고 제대 앞쪽부터 줄을 맞춰서 앉았다. 맨발이다 보니 여름에는 개구쟁이들의 심한 발냄새가 코를 찔렀다. 겨울에 마루판 옹이구멍 난 곳에 앉은 날이면 솟구치는 냉기에 몸이 얼얼했다.

요즈음 미사는 그 시절에 비하면 참 편하고 좋다.

사제가 우리말로 봉헌하는 미사는 의미를 잘 알 수 있다. 신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강론도 이해하기 쉽다. 유머가 섞인 강론은 재미도 있다. 장궤틀에서 미사를 참례하니 앉았다 일어서기도 좋다. 냉난방 시설이 좋아서 한겨울과 한여름도 불편함이 없다.

그러나 나는 어린 시절의 불편했던 미사가 그립다.

요즈음 미사보를 쓰지 않은 채 노출 심한 옷차림의 자매들, 아웃도어 차림의 형제들, 미사 시작 전에 들리는 잡담 소리, 미사 끝나기 무섭게 성당 밖으로 나가는 신자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

미사는 거룩한 봉헌행위로 가장 큰 기도이다. 영성체로 내 안에 오신 하느님을 만나는 절대적 시간이다. 좀 더 옷차림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참례했으면 좋겠다.

언론인 daedan57@hanmail.net

본당의 福음자리

차 한 잔을 건네는 마음

주일 미사에 참례하러 성당에 왔을 때 처음 만나는 교우가 활짝 웃으며 반겨준다면 주일 하루가 신나고 즐거울 것입니다. 반면에 잔뜩 찡그린 얼굴을 하거나 무표정한 얼굴로 인사는커녕 모른 척 지나쳐버리는 교우를 만난다면 왠지 모를 씁쓸함으로 주일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호탕하게 웃고 계신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성화를 보면서 예수님의 환한 웃음으로 제 마음이 따뜻해지고 환해지는 체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복음화된다는 말은 복음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하고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어야 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본당에서는 매 주일 교중미사 후에 차 나누기를 합니다. 제 단체에서 돌아가며 차 나누기 봉사를 하는데, 커피와 율무차를 교우들에게 건네는 그들의 모습이 무척 인상 깊습니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환하게 웃으며 다정하게 차 한 잔을 건네는 것입니다. 비록 차 한 잔일지 모르지만, 그 한 잔의 커피와 율무차에 담겨있는 사랑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음을 봅니다.

진심은 통한다는 말처럼 상대방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껏 차 한 잔을 건네듯이 우리가 평소에 만나는 이들을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화는 결코 거창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차 한 잔을 건네는 마음'으로 활짝 웃으며 이웃을 반겨주고 환대하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닐까요.

강정웅 신부(반송성당 주임) k-joyce@hanmail.net

♣ 18일 : 군데니스, 네메시오, 루필로, 마리나, 마테르노, 브루노, 스탁테오, 시몬, 심포로사, 아르눌포, 에드부르가, 에밀리아노, 에우제니오, 유스티노, 율리아노, 크레센스, 팜보, 프레데리코, 프리미시보, 필라스트리오

열두 광주리

농촌과의 참된 연대를 위한 2017년 부산교구 신학생 농촌 체험 활동 후기

땅에서 배우는 겸손

김 성 중 베드로 / 학부 4년, 하단성당

방학을 하루 앞둔 신학교에서의 학기 마지막 밤, 이전처럼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다. 우리는 곧바로 '농활'이라는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있었기 때문이다. 익숙하지 않은 그 활동이 생명과 자연의 가치를 체험한다는 기대보다는, 힘들었던 시험 기간을 바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이기적인 생각과 함께 고된 노동의 시간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농활 첫날, 논에서 피를 뽑는 작업부터 시작하였다. 피와 잡초를 제거하는 일은 단순하지만 작업 내내 허리를 굽히고 땅을 마주하게 만들었다. 도시 생활에 익숙한 나는 이런 동작에서 땅이 말해주는 중요한 가치를 쉽게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저 고되고 허리 아프고 보잘것없는 일, '이 시간이 지나 빨리 쉬고 막걸리나 마셨으면' 하는 정도의 시간들이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문득 겸손에 대한 교황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땅을 보면 겸손을 알 수 있다. 땅은 늘 모두에게 밟히지만 모든 것을 지탱하고 모든 것을 낳는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를 바라보았다.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땅으로 내려오신 주님의 겸손을 따라 사제가 되고 싶다' 하면서 방학 중의 편함과 시원한 에어컨 바람 밑을 그리워하는 나는 정말 위선적인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작업 내내 하느님께 기도했다. '하느님 이 피를 뽑으면서 제 안의 위선과 교만, 이기심, 온갖 나쁜 것들을 함께 뽑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이 길을 제대로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 뽑는 일은 언양 회장님 말씀대로 핵심적인 일은 아니지만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었다. 핵심적인 일이 아니라서 경시되기 쉽지만 하지 않으면 핵심이라 생각했던 일들마저 망치게 되는 일, 핵심적인 일을 밑에서 받쳐주는 참으로 겸손한 일, 소리 없는 일이다. 생산직, 건설직, 환경직 등에 종사하시는 분들, 특히 초고령화 사회로 나아가는 이 땅에 농촌에 남아 정당한 방식으로 농사짓는 어르신들이 바로 이 사회를 지탱하는, 이 사회의 피를 뽑으시는 귀한 일꾼들이 아닐까? 나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잘 먹고 잘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지만 안 하면 안 되는 일에는 너무나 무관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일들을 한국의 청년들은 기피하기에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지만 그들에 대한 폭력적이고 비인격적인 대우와 이를 막지 못하는 법의 병폐는 너무나 이기적인 우리 사회의 현실을 대변해주는 것만 같았다.

본격적인 방학을 시작하는 나에게 무의식 속에 노동을 기피하려 했던 안일한 마음은 농활과 함께 완전히 변했다. 좀 더 낮은 마음으로 보다 열정적인 마음으로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땀 흘리는 하늘나라의 농사꾼이 되기로 다짐한다.

성경을 읽어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아침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점심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저녁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다 똑같은 임금을 주시는 주인으로 묘사하던데요. 요즘에 정의롭지 못한 정치인들이 비판을 많이 받는데, 하느님 또한 이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한 수사 신부님은 성덕으로 수도원 안에서 너무나 많은 존경을 받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동생을 걱정했습니다. 동생은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다, 말년에 요양병원에서 쓸쓸히 죽어가야 했습니다. 형은 동생이 그리스도 신앙을 받아들이기를 평생 기도했습니다. 결국 동생은 죽음을 맞기 직전에 병원에서 대세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손에 묵주를 쥐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형님은 뜻밖에 동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동생도 역시 하느님의 은혜로 자신과 마찬가지로 천국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비로운 하느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비유로 아침 일찍 일한 일꾼과 오후 늦게 일한 일꾼과 저녁 늦게 일한 일꾼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는 포도밭 주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참 정의롭지 못한 주인이지요. 그런데 하느님의 나라는 이윤이 거래되는 직장이나 일터 보다는 어쩌면 가족이 더 어울릴 것입니다. 복음에서 주인에게 불림을 받은 일꾼들이 가족이거나 친구들이라면 오히려 모두에게 후하게 대하시는 주인이 고맙게 느껴질 것입니다. 정의는 사랑의 깊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느님의 구원은 정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이나 일꾼이 아니라 친구와 형제를 부르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의 이웃을 같은 형제자매로서 사랑의 눈으로 보았을 때 하느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있는 것입니다.

권순호 신부(주례성당 주임) albkw93@hotmail.com

♣ 19일 : 루피나, 마르티노, 마크리나, 심마코, 아르세니오, 암브로시오 아우트페르토, 아우레아, 에바프라, 요한 플레싱턴, 유스타, 펠릭스

부산광역시 그룹홈 지원센터, 2주년 기념 성과 보고회 – 전국 교구 최초 그룹홈 지원센터 운영

로사리오 카리타스(상임이사 : 김영환 신부)에서 부산시로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그룹홈 지원센터(센터장 : 이경국 요셉)는 개소 2주년을 맞아, 지난 7월 7일(금) 14:00 아동자립지원센터에서 그간의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성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부산 내 31개 그룹홈 시설장, 부산시 관계자, 후원자 및 유관 기관장 등 5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센터는 2년 간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했고, 종사자 및 시설장을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와 소진예방 및 직무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한 아동 · 청소년들에게 상담 및 치료, 진로 및 자립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룹홈(공동생활가정)은 학대, 방임, 가족해체, 빈곤, 위기 가정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청소년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안 가정을 말한다.

양정성당, 본당 설립 60주년 기념행사 – 수정마을성당, 본당의 날 행사

양정성당(주임 : 임석수 신부, 회장 : 유주열 가브리엘)은 본당 설립 6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7월 9일(일) 본당 출신 사제 박성태 신부(가톨릭시각장애인복지회)를 초청하여 감사미사를 봉헌했다.

또한 수정마을성당(주임 : 강우현 신부, 회장 : 강종원 루카)에서도 본당의 날을 맞아 지난 6월 25일(일) 나바위성지에 순례를 다녀왔다.

양정

하단성당, 혼인 갱신식

7월 2일(일) 23쌍 부부 / 주임 : 권동국 신부, 회장 : 정종술 안토니오

초량성당, 성체조배실 축복식

7월 2일(일) / 주임 : 이재원 신부, 회장 : 문상제 이냐시오

용호성당, 여왕이신 동정 성 마리아 Pr. 2,000차 주회

7월 4일(화) / 주임 : 임영민 신부, 단장 : 이동수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예비신자 피정 다녀왔습니다

안락

6월 18일(일)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주임 : 윤경철 신부, 회장 : 김준 가브리엘

온천

6월 25일(일)
오륜대순교자성지, 교구청, 주교좌 남천성당
주임 : 박상대 신부, 회장 : 박순호 프란치스코

♣ 20일 : 마르가리타, 마크로비오, 막시모, 바오로, 바울라, 불마로, 빌제포르타, 사비노, 세베라, 아우렐리오, 아폴리나리스, 안세지소, 엘리야, 엘리야, 요셉 바르사바, 율리아노, 카시아, 플라비아노

부산 피서지 인근 성당 및 미사 시간 안내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마태 11, 28)

간절곶	길천성당 (051)727-7936	(토) 18:30 / (일) 6:30, 10:30
광안리 해수욕장	민락성당 (051)754-7150	(토) 19:00 / (일) 6:30, 9:30, 11:00, 19:30
	남천성당 (051)623-4528	(토) 16:00(어린이), 19:30 / (일) 6:00, 9:00, 11:00, 17:00, 19:00, 21:00
	광안성당 (051)756-3351	(토) 16:00(어린이), 19:00(중고등부) / (일) 6:30, 8:30, 10:30, 19:30
금강 공원	온천성당 (051)552-0355	(토) 16:00(어린이), 19:30 / (일) 6:30, 9:00, 11:00, 19:30
나사리 해수욕장	길천성당 (051)727-7936	(토) 18:30 / (일) 6:30, 10:30
낙동강변	구포성당 (051)332-6370	(토) 16:00(어린이), 18:30 / (일) 7:00, 10:30, 19:30
	금곡성당 (051)362-4700~1	(토) 19:00 / (일) 6:30, 11:00, 19:00
	화명성당 (051)341-7770~1	(토) 15:30(어린이), 19:00 / (일) 6:30, 10:30, 19:00
다대포 해수욕장	다대성당 (051)263-8681, 4709	(토) 15:00(어린이), 19:00 / (일) 6:30, 8:30, 10:30, 19:00
	몰운대성당 (051)265-5531	(토) 16:00(어린이), 19:00 / (일) 6:30, 9:00, 11:00, 19:30
범어사	금정성당 (051)581-4008	(토) 15:00(어린이), 19:00 / (일) 6:30, 9:00, 11:00, 19:30
	남산성당 (051)583-6314	(토) 16:00(어린이), 19:30 / (일) 6:30, 9:00, 11:00, 19:30
송도 해수욕장	송도성당 (051)254-1601	(토) 18:30 / (일) 6:30, 10:30, 19:00
송정 해수욕장	송정성당 (051)704-8901	(토) 19:30 / (일) 10:30, 19:30
용두산 공원	중앙성당 (051)246-4284	(토) 16:30(어린이), 19:00 / (일) 6:30, 9:00, 11:00, 16:00, 18:00, 20:00
울주군 석남사, 작천정	언양성당 (052)262-5312~3	(토) 16:00(어린이), 18:00 / (일) 6:30, 9:00, 11:00, 19:30
일광 해수욕장	기장성당 (051)721-2273	(토) 16:00(어린이), 19:00 / (일) 6:30, 10:30, 19:00
일산 해수욕장	방어진성당 (052)235-0763	(토) 16:00(어린이), 18:30 / (일) 6:30, 10:30, 18:30
	전하성당 (052)234-9601	(토) 18:30 / (일) 6:30, 10:30, 19:30
임랑 해수욕장	길천성당 (051)727-7936	(토) 18:30 / (일) 6:30, 10:30
진하 해수욕장	길천성당 (051)727-7936	(토) 18:30 / (일) 6:30, 10:30
	남창성당 (051)238-3880	(토) 18:00 / (일) 10:30
태종대	태종대성당 (051)404-1118	(토) 16:00(어린이), 19:30(중고등부) (일) 6:30, 9:00, 11:00, 19:30
해운대 해수욕장	해운대성당 (051)746-5881	(토) 16:00(어린이), 19:30 (일) 6:30, 9:00, 11:00, 19:30

교 구

성직자 성화를 위한 미사
· 7.17(월) 10:00 묵주기도, 10:30 미사
· 교구청 2층 성당 / 문의 : 629-8760~2(성소국)

2019학년도 신학대학 지원자 모집 및 피정
· 7.29(토) 13:30~30(일) 13:00 · 부산 은혜의 집
회비 : 3만 5천원 / 마감 : 7.19(수)
대상 : 사제성소에 관심 있는 현재 고2, 일반
문의 : 629-8760 ※ 2019학년도 신학대학에 지원할 지망자는 반드시 이 피정에 참석해야 합니다.

선종 사제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2007.7.21. 함영상(비오) 신부님

본 당

온천성당 은혜의 밤
· 7.20(목) 19:00~22:30(강의 및 미사, 안수)
주제 : 그리스도인의 행복 / 강사 : 최영배 신부
문의 : 552-0355, 010-8006-7756

엄궁성당 공지영 작가와의 만남
· 7.21(금) 20:00 · 엄궁성당 / 문의 : 314-6235
저서 : 높고 푸른 사다리, 수도원 기행 1,2 등

화명성당 관리장 구함
자격 : 운전(1종보통), 기타 기능자격증 소지자
서류 : 이력서, 교적사본, 본당신부 추천서
문의 : 341-7770

기관 · 제 단체 · 위원회

부산 마리아사제운동 체나콜로 기도 및 월미사
· 7.18(화) 14:00 / 지도 : 윤명기 신부
· 가야성당 / 문의 : 010-8879-2376(회장)
※ 8월은 성모 승천 대축일 관계로 쉽니다

부산교구 공원묘지 하 늘 공 원
†미사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3층 경당
†셔틀버스 운행
09:00 남천동 교구청
10:00 온천장 전철역(1번 출구)
10:30 양산 전철역(2번 출구 건너편)
※ 운영 시간 : 09시~17시(연중 무휴)
※ 분양 문의 : 관리사무실 Tel. 055)374-8732~3

(주) 씨피여행사
1. 8/15 스페인 일주, 루르드, 파티마 14일
2. 9/10 동유럽 성지순례 13일 395만원
3. 9/18 스페인, 포르투갈, 루르드 11일 380만원
4. 10/2 연휴 로마, 루르드, 파티마 13일
010-3837-6434 국내선 항공 포함

바른성모안과
망막(황반변성, 당뇨망막증, 망막혈관폐쇄), 백내장
원 장. 최 베드로(한국망막학회 정회원)
242-0075
서구청 옆 바른병원 3층

인성심리상담센터
놀이치료, 미술치료, 모래놀이치료
대상 :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612-5611 insungtherapy.modoo.at
남천동 부산은행(광남지점) 3층

전립선, 성기능, 요실금, 결석, 남성수술
스마일 정경우비뇨기과
정 경 우 (시몬)
전. 동아대병원 비뇨기과 과장/주임교수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타워메디컬 2층
744-8181 www.bmu.co.kr
상담 010-5616-8600

제주도관광안내
제주교구 운전기사 사도회에서는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 안내
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064)758-6476
010-4566-6476

경찰청 지정 전문학원강사 책임 지도
도 로 연 수
전문강사 : 김 정 근 (바실리오)
010-6555-8655
도로연수는 나와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루르드/파티마 성지와 산티아고 순례길 41일 429만원
10월 출발(신부님 동행)
안 지 원 (스테파노)
070-4086-0207
www.catravel.co.kr

법무법인 율강
민사, 형사, 가사, 회생, 파산, 조세, 행정 등 각종 법률상담
대표변호사. 임 경 표(세례자요한)
717-2570, 010-7455-1031

삼 진 커 텐
수입커텐, 암막커텐, 우드브라인드, 콤비브라인드
이 영 복(요셉) · 김 미 현(마리아)
010-8546-2453
부산진시장 1층 11호문 앞

이상열 마취 통증의학과 의원
허리통증(디스크), 좌골신경통, 무릎관절통
목 · 어깨통증(오십견), 손 · 발 저림 및 시림
구서전철역 앞 동산약국 2층
원장/전문의 이 상 열(베드로)
516-0888

♣ 21일 : 다니엘, 라우렌시오, 론지노, 빅토르, 아르보가스토, 알렉산데르, 요한, 유스토, 유쿤디노, 율리아, 조티코, 클라우디오, 펠리치아노, 프락세데스

시각장애인선교회 후원회 미사
· 7.17(월) 12:00 · 선교회 3층 성전
주례 : 박성태 신부 / 문의 : 464-3909

해양사목 월미사
· 7.17(월) 14:00 · 가톨릭센터 3층
주례 : 이균태 신부 / 문의 : 464-2707

오륜대순교자성지 후원회 미사 및 특강
· 7.20(목) 11:00 · 오륜대순교자성지성당
주제 : 전국 주요 성지 해설(해미)
문의 : 515-0030

전례꽃꽂이연구회 미리보는 전례꽃 및 월미사
· 7.24(월) 10:30 · 교구청 2층 성당
문의 : 010-4554-1173, 010-5064-6512

오륜대순교자성지 상설고해소 운영
· 매주 월, 금 14:00~15:30 / 문의 : 515-0030

성령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 집
-교구 철야기도회(치유의 밤)
· 7.21(금) 22:30~다음날 04:00
강사 : 이정의 자매(광주대교구)
- 젊은이 성령기도회
· 7.17(월) 19:30 전포성당
· 7.19(수) 20:00 울산대리구 별관
- 수요치유기도회
· 7.19(수) 11:00~16:00 / 점심 제공
버스시간(카드시간표 참조)
- 교구 성령묵상회
제428차(젊은이) : 7.21(금) 19:00~23(일) 17:30
회비 : 10만원(교재비 없음)
18:30 동래 전철역 3번 출구 앞 지하도 입구
제429차 : 7.28(금) 11:00~30(일) 19:30
회비 : 10만원, 교재비 : 5천원
10:30 동래 전철역 3번 출구 앞 지하도 입구

울산대리구 (052)244-7014 울산 영성의 집
- 울산 기도회
· 7.20(목) 20:00~23:00
강사 : 이광우 신부(가야성당 부주임)
- 100단 묵주기도(미사, 안수) / 점심 제공
· 7.17(월) 09:00~17:00 울산 영성의 집

부산ME 소개모임
· 7.17(월) 20:00 · 남천성당
349차 ME 주말 : 7.21(금)~23(일)
사랑방 ME 소개모임 : 수시 / 문의 : 010-2703-0155
010-4872-5051(울산), www.mekorea.or.kr/bs

꾸르실료 참가 신청
제401차(자매) : 7.20(목)~23(일)
제402차(형제) : 7.27(목)~30(일) / 마감 : 7.19(수)
문의 : (055)388-5734, 388-5733(팩스), 본당 간사

서예인회 7월 정기모임
· 7.25(화) 18:30 · 남대문(서면 영광도서 앞)
문의 : 010-8521-9522(회장) ※ 회원 수시 모집

가톨릭센터 사무실 임대(7, 8층)
용도 : 사무실(7층 20평, 8층 14평)
문의 : 462-1870(행정실)

교육 · 모집 · 기타

삼위일체수녀회 〈3+1 미사〉
· 7.17(월) 19:30 · 삼위일체수녀원
대상 : 미혼남녀 누구나 / 문의 : 463-7660

밀양가르멜수녀원 후원회 미사
· 7.20(목) 11:00 · 남천성당 대성전
주례 : 이홍기 몬시뇰 / 문의 : (055)353-6597

예수회 새사제 첫미사
· 7.21(금) 14:00 · 남천성당
새사제 : 박수영, 최준열, 이창현, 조창모, 전찬용, 박경웅 신부 / 문의 : 010-3245-7900

2017년 2학기 말씀학교 무료 영성강좌(2코린)
· 8.31~ 매주 수 10:00~12:10(16주) · 가톨릭센터
문의 : 010-9333-6260(성바오로수도회) ※ 미사 있음

비움과 채움의 효소단식피정
42차 : 7.27(목)~30(일), 43차 8.3(목)~6(일)
·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집 / 문의 : 010-3401-5541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입니다.

배상섭 신부와 함께 하는 성지순례
· 7.26(수)~8.7(월) · 서유럽 성모성지순례 / 465만원
· 9.1(금)~14(목) · 독일 수도원 기행, 오스트리아 성모성지, 이태리 일주 순례 / 415만원
독일항공, 부산 출발 / 문의 : 010-3837-6434

한티순교성지 피정
· 7.22(토) 16:00~21:00, 8.12(토)
주제 : 한티 달빛길 걷기 / 문의 : (054)975-5151
주최 : 한티순교성지, 한티가는 길 위원회

한티순교성지 피정(순례음악)
· 7.29(토)~30(일), 8.26(토)~27(일)
주제 : 그대 어디로 가는가
지도 : 홍경혜, 홍승란 / 문의 : (054)975-5151

성경 거룩한 독서 피정
· 7.22~23, 7.29~30, 8.5~6, 8.12~13, 8.26~27, 9.23~24, 10.7~8, 10.14~15, 10.21~22, 10.28~29, 11.25~26, 12.9~10, 12.16~17, 12.23~24, 12.30~31
토 14:00~일 16:00 / 피정비 : 5만원
· 경남 고성 올리베따노 성베네딕도 수도원
강의 : 유덕현 신부 / 문의 : 010-2816-1986

성모승천대축일 성 예술 전례피정 soul stay
· 8.13(일) 16:00~15(화) 13:30
· 성 베네딕도 왜관 피정의 집 / 참가비 : 15만원
농협 301-0087-0776-61 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 문의 : (054)971-0722, 010-9877-4739

인천박문초등학교 정교사 구함
채용분야 및 인원 : 정교사(학급담임) 3명
지원자격 : 초등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지원 : 8.7(월)까지 / 문의 : (032)810-8501(교무실)

2017년 2학기 사이버 성경학교 수강생 모집
모집 : 9.30(토)까지 / 대상 : 성경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
문의 : (031)8017-4239, cyberbible.casuwon.or.kr

인간존중 · 생명사랑 정신을 구현하는
부산가톨릭대학교 학과 안내
유통 및 마케팅전문가를 양성하는
유통경영학과
www.cup.ac.kr

부산 (최대규모) 인공신장실 확장 개소
최신 혈액투석기 26대 추가배치
환자 대기시간 단축
투석 중 TV 시청 및 인터넷 가능
신장내과 전문의 직접 진료
부산가톨릭의료원 메리놀병원
문의 : 461-2307, 2308 (인공신장실)

가톨릭센터 1982 복음문화나눔 행복한 세상
무료영화상영
오베라는 남자
일시. 7/17(월) 19:00
장소. 가톨릭센터 소극장 (예술전용관C&C)
내용 : 인생 최악의 순간, 최고의 이웃을 만나다! <강력추천>
18:00 후원 감사 미사(센터 경당) / 다과 / 영화 관람
가톨릭센터를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 462-1870 / www.bccenter.or.kr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 · 탈자를 발견하시면 우편이나 팩스(629-8756),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국가 공인 1급 조율사 직영점 -
야마하중고피아노직수입
삼익영창그랜드피아노판매
중고 피아노 사고 팝니다
조태상(클라로) · 이정미(노엘라)
851-4545, 010-3597-4641

수맥과 건강
불면증, 만성피로,
혈액순환장애, 정신집중 안됨
치료해도 효과를 못 보시는 분, 문의 환영
사무실 517-3233
서순복(발비나) 010-3862-6834

양지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지오션시티에 있는 양지부동산은
바른 생각과 정직한 매물로
고객님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드리는
부동산 길라잡이가 되겠습니다.
임 선 주 (모니카)
010-2428-4680, 201-7500

대동병원 무릎관절센터
무릎 관절염, 무릎 인공 관절,
관절 내시경, 스포츠 외상
정형외과 송무호(토마스)박사
미국 피츠버그 대학병원 전임 의사
영국 옥스포드 대학병원 연수
동래 전철역 옆 554-1233
www. ddh.co.kr

해충 방역 소독
악취 완전 제거
허 정 희 (토 마 스)
010-9689-8119
(NAVER : 바이벅스)

백천피부과의원
(구) 괴정동 백천피부과
조광윤(안토니오), 김정민(아렛따)
758-1100 지하철 수영역 3번출구
기미·잡티·여드름·홍조·에스테틱

건설현장의 꽃
조은 이동타워 크레인
독일 LIEBHERR, MK80,88,100,110, 등
MK80-마스타30M 찝42M엔드 1.7톤작업
MK100-마스타35M 찝52M엔드 1.6톤작업
MK110-마스타35M 찝52M엔드 1.8톤작업
장비임대. 현장답사(상담환영)
1833-6368, 010-3831-2403
심 현 진 (프란치스코)

재활전문
수요양병원
재활·작업치료의 명품 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인증의료기관
입원상담. 750-7000, 7080
오 세 문(베드로)

라파엘여행사
9/11 성모님 발현지 13일 389만원
9/11 이스라엘, 이태리 12일 395만원
9/18 발칸, 크로아티아 11일 359만원
10/19 산티아고 도보순례 14일 389만원
성지순례 (02)778-8565

부산최초제조허가. KGMP(우수제조)인증업체
복지카드소지자(수급자무료제작, 일반90%혜택)
독일보청기
독일.미국.스위스 수입디지털보청기
맞춤형 당일 제작, 즉석 수리
김 무 나 (글라라) * 교우특별할인
803-5588, 1871
서면 지하철역 4, 6번 출구(1층 빨간색 간판)

♣ 22일 : 다비오, 마리아 막달레나, 메넬레오, 반드레지실로, 신티케, 요셉, 요한 로이드, 치릴로, 테오필로, 플라토, 필립보 에반스